

공동체 라디오와 지역 공동체 구성원의 상호작용에 대한 현장연구

마포 FM 사례를 중심으로*

반명진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신문방송학과 박사과정**

김영찬 한국외국어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이 연구는 마포 FM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해 대안 미디어, 테크놀로지, 그리고 콘텐츠 중심의 논의로 치우쳐져 있는 기존의 공동체 라디오 연구의 한계를 넘어서려는 시도를 한다. 지역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방송 제작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스스로 문화적 정체성을 재구성해낸다는 측면에서 공동체 라디오는 구성원들의 문화적 실천을 엮어내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지역 공동체 구성원들이 공동체 라디오를 전유하고 이를 통해 스스로 정체성을 재구성해내는 양상들은 공동체 라디오의 정체성을 재조명할 수 있게 하는 단초를 제공해준다. 심층 인터뷰를 동원한 현장연구 결과에 따르면, 공동체 라디오는 참여형 제작과정이라는 문화적 실천을 통해서 엮이게 되는 - 즉 지역 공동체 구성원들과의 상호작용이라는 측면에서 - 삶이 묻어나는 매체인 동시에, 지역성과 대안성이라는 특성을 넘어 시민성과 공동체성과 관계망의 형성에 기여하는 미디어, 즉 사회적 유대감과 연대를 형성하는 데에 기여하는 미디어라고 재정의할 수 있다.

KEYWORDS 공동체 라디오, 지역 공동체, 상호작용, 문화적 실천, 사회적 관계망

* 이 연구는 2013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의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 mjfalcon@daum.net

*** culturally@naver.com, 교신저자

1. 들어가며

한국 사회는 급속한 압축성장과 도시화 과정 속에서 지역 공동체가 와해되고 축소되는 과정을 거쳤다. 이는 1997년 IMF 금융위기 이후 신자유주의 질서로의 재편 과정에서 더욱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 과정 속에서 점점 더 개인의 삶은 파편화되고 피폐해지고 있다. 낯이 심화되고 있는 청년실업, 1인가구의 증가, 고령사회로의 진입과 맞벌이 가구의 증가에 따른 돌봄과 관련된 문제 등 한국 사회에서 개인이 겪고 있는 문제들의 대부분은 개인의 힘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들과 중첩되어 있다.¹⁾ 사회적 차원에서 해당 문제를 수용하고, 공공성에 대한 논의 및 공론화와 사회적 연대를 통한 해결책 모색이 절실한 시점이다. 지역 공동체 문화의 복원과 활성화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려는 시민사회 영역의 여러 시도들은 그런 문제의식과 궤를 같이한다.

본 연구에서 지역 공동체와 공동체 라디오에 대해 주목하고자 하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이다. 이미 여러 나라에서 소출력 라디오(low power radio) 혹은 공동체 라디오(community radio)는 거대 상업방송에 대한 대안 미디어로서, 정치적·문화적으로 사회의 변화를 원하는 사람들에 의해 중요하게 활용되어왔다(최성은, 2014). 최근 일본과 미국에서는, 공동체 라디오가 위기 시 재난방송의 역할을 맡음으로써 그 존재가치 및 위상이 재조명되기도 했다.

한국도 공동체 라디오와 관련하여 2005년 방송위원회가 8개의 시범사업자를 선정하면서 의욕적인 출발을 했다. 그러나 이후 5년간의 시범사업 기간을 거쳐 7개의 방송국들이 2009년 8월에 정규면허를 취득했지만,²⁾ 공동체 라디오는 여전히 미디어 정책의 주변부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최성은, 2011). 현재 공동체 라디오 방송국들은 2014년 12월 31일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재허가 심사를 통해, 2017년 12월 31일 까지 허가유효기간이 연장된 상태이다.³⁾

1) 그럼에도 미디어가 적극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주류 담론은 개인의 성공신화에 천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국의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는 리얼리티 장르의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시즌을 거듭해가며 여전히 시청률 경쟁을 하고 있다. 이 오디션 프로그램들의 한계는, 88만 원 세대, N포세대, 흠수저 등으로 표현되는 청년실업이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라는 문제 제기가 있음에도, 자기계발/자기통치의 담론을 통해 개인의 성공 신화를 무비판적으로 재생산하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강수진, 2012).

2) 초기 8개 라디오 방송국은 광주시 북구청의 <광주시민방송>, 대구 성서의 <성서공동체 FM>, 경북 영주의 <영주 FM>, 충남 공주의 <금강 FM>, 성남 분당의 <FM 분당>, 서울의 <관악 FM>과 <마포 FM>, 그리고 전남 나주의 <나주시민방송>이었다. 2004년에 <나주시민방송>은 시범사업자로 선정되어 활동하였으나, 2009년 8월 정식사업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탈락하였다. 현재 7곳에서 출력 1와트로 방송을 하고 있다.

규범적 차원에서 공동체 라디오의 필요성이 회자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관련 제도적 장치가 미비할 뿐만 아니라, 외국의 경우처럼 공동체 라디오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는 시작되었다.⁴⁾ 지금까지 공동체 라디오의 다양한 가능성들에 대한 논의들이 있어 왔지만, 주류 미디어에 대한 관심의 양과 비교해 볼 때, 미디어전경의 주변부에 위치한 공동체 라디오에 대한 논의들이 현실의 제도적 변화를 추동할 만큼 충분했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공동체 라디오가 위치한 해당 사회의 맥락에 따라 공동체 라디오가 전유되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상기한다면, 과연 지금까지 관련된 논의들이 한국사회라는 맥락 하에서의 공동체 라디오의 특수성 및 정체성에 대한 다각적인 고찰을 충분히 담아낸 것일까, 그렇지 않다면 한국사회 또는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한 공동체 라디오의 스펙트럼과 가능성에 대한 탐색이 여전히 부족한 것은 아닐까 자성해 본다.⁵⁾

공동체 라디오는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형태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는 지역이나 국가에 따른 공동체 라디오의 역사나 사회적 배경의 차이에서 기인하며(최성은, 2014),⁶⁾

3) 재허가 심사결과는 다음과 같다(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4-73호).

법인명	방송국명	심사결과	허가유효기간
(사)금강에프엠방송	공주공동체라디오FM방송국	재허가	2017.12.31.
(사)문화복지미디어연대	성남공동체라디오FM방송국	재허가	2017.12.31.
(사)관악공동체라디오	관악공동체라디오FM방송국	재허가	2017.12.31.
(사)광주시민방송	광주공동체라디오FM방송국	재허가	2017.12.31.
(사)마포공동체라디오	마포공동체라디오FM방송국	재허가	2017.12.31.
(사)성서공동체에프엠	성서공동체라디오FM방송국	재허가	2017.12.31.
(사)영주에프엠방송	영주공동체라디오FM방송국	재허가	2017.12.31.

4) 영국의 경우 2004년도에 공동체 라디오(community radio)에 대한 법제화가 이루어졌고, 2013년 기준 200여개가 넘는 공동체 라디오가 운영 중이며, 호주의 경우 정규방송 도입 이후 ‘제3영역 라디오(the third tier of radio)’ 면허제도 속에서 다문화주의에 기반한 360여 개의 공동체방송이 호주 전역에서 운영되고 있다. 일본 역시 지역밀착형 방송으로서 260여 개의 공동체 라디오 방송이 존재한다. 소출력 라디오(low power FM)가 활성화 되어 있는 미국에서도 2011년 ‘지역공동체라디오법(Local Community Radio Act of 2010)’에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함으로써 더 많은 공동체 라디오들이 설립될 수 있도록 규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김은규 · 최성은, 2013; 최성은, 2014).

5) 조심스러운 의견이지만, 현장연구를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들린 목소리는, 선진국의 이론이나 사례 소개에 더해 한국의 몇몇 사례 연구로 자족하는 학계의 유행으로 그치지 말기를 바란다는 것이었다. 꼭 외국처럼 양적으로 많은 수의 공동체 라디오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규범적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에 상응하는 논의의 활성화로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 학계 차원에서 담아내지 못한 사회적으로 중요한 논의의 지점들이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해준다.

6) 유럽과 북미, 호주의 경우 주류 미디어의 독점과 집중에 대응하고, 지역별 균형 발전과 다양한 사회적 공동체 들(토착민, 이민자, 난민, 흑인)의 권리 신장 차원에서 공동체 라디오가 발전되어왔다. 남미의 경우 사회적 약자들의 커뮤니케이션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아프리카와 아시아에서는 민주주의와 지역사회의 발전

지역 공동체 구성원들이 공동체 라디오를 전유하는 방식 또는 지역 공동체와 공동체 라디오 간 상호작용 방식이 공동체 라디오의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주었음을 의미한다.

지역 공동체라는 존재론적 전제가 없이는 공동체 라디오의 논의는 시작조차 될 수 없다. 지역 공동체 구성원들과 해당 지역 공동체의 정체성에 대한 논의 및 당면한 지역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과정 속에서 공동체 미디어는 출현하고 구성원들에 의해서 전유된다. 공동체 라디오가 생산하는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연구에 더해, 지역 구성원들의 제작 참여와 관련된 문화적 실천, 그리고 공동체적 삶(communal life)을 매개로 지역 공동체와 공동체 라디오의 유기적인 상호작용에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그 때문이다. 공동체 라디오가 생산하는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고찰도 중요하지만, 미디어 내적인 측면으로만 접근할 경우 대안 미디어로서 공동체 라디오가 가진 다양한 가능성을 축소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⁷⁾

해외의 많은 국가들에서 공동체 라디오는 미디어 다원주의와 다양성, 지역성, 미디어 리터러시, 사회 통합, 지역 재난 방송 등 다양한 영역과 관점에서 그 사회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최성은, 2014). 이런 사회적 가치에 더해, 본 연구에서는 사례연구를 통해 한국 사회의 공동체 라디오의 정체성에 대해 탐색적 고찰을 시도해보고자 한다. 공동체 라디오가 갖는 대안성을 미디어 내적인 측면에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맥락적으로 접근할 때 한국 사회에서 공동체 라디오의 정체성에 대해 더 잘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이다.⁸⁾

차원에서 공동체 라디오가 설립되고 발전되어 왔다(최성은, 2014).

7) 2012년 6월 25일, <미디어 개혁 입법을 위한 연속 토론회> 8번째 세션에서 ‘공동체 라디오 방송 발전법 제도 개선’이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당일 토론회는 커리얼(커뮤니티 라디오 협회) 소속 공동체 라디오 방송국들 대표들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해당 토론회에서 미디어로서의 라디오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룬 것에 대해 - 즉 미디어라는 측면에만 방점을 찍은 것에 대해 - 지역자치의 활성화 측면에서, 이만제는 지역 자치단체와의 관계 속에서 공동체 라디오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8) 지역 공동체/공동체 구성원들/공동체 라디오의 문화적 실천에 주목함으로써, 공동체 라디오의 정체성에 대한 재조명을 통해 공동체 라디오가 어떻게 전유되고 있는지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단지 지역 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자원의 역할뿐만 아니라, 미디어 생태계의 왜곡된 지형도를 개선하는 데에 있어서도 공동체 라디오의 역할은 중요하다. 미디어 생태계의 건강성과 관련하여 공동체 라디오의 존재는 일종의 지표에 해당한다. 방송법 개정으로 미디어 지형은 신자유주의 논리에 충실하게 시장 중심으로 구축되고 있다. 시장 중심으로 미디어 생태계가 재편되었을 경우, 지역성이 강화된 뉴스라든가 지역 공동체의 목소리를 담은 콘텐츠 생산은 시장성이라는 기준을 적용하면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것은 단지 지역성이라는 문제로 한정되지 않는다. 단지 지역적인 콘텐츠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미디어 생태계의 왜곡이 심화됨으로 인해 사회적 소수자의 목소리를 담은 매체가 사라질 우려가 있다. 이는 생태계의 다양성지수가 생태계의 건강성을 반영하고 있음과 마찬가지로.

2. 선행연구 및 이론적 고찰

공동체 라디오에 대해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연구들은 다음과 같은 유형들로 대략적으로 묶어 볼 수 있다. 해외 공동체 라디오의 사례에 대한 분석(한선·이오현, 2008a; 차재영, 1999), 또는 해외와 한국의 공동체 라디오에 대한 사례를 비교 분석한 연구(한선·이오현, 2008b; 최성은, 2010), 대안 미디어로서 공동체 라디오에 대한 이론적 접근(성정애, 2006; 차재영, 2007; 하주영, 2005), 한국 사회 내에서의 공동체 라디오에 대한 사례 분석(강진숙·이은비, 2013; 김선희 2009; 박창원, 2008; 안진·채영길 2015; 정빛나, 2011; 한정미, 2006) 등이다.

공동체 라디오에 관한 초기 연구는 주로 해외 공동체 라디오의 운영 사례에 대한 분석과 이론적 접근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사례들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공동체 라디오에 대한 개념 정리 및 대안 미디어로서의 정체성에 대해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그리고 대안 미디어로서 공동체 라디오의 정체성에 대한 이론적 접근을 바탕으로, 현재 한국 사회의 공동체 라디오에 대한 사례분석들이 뒤를 이어 나오고 있다.

공동체 라디오는 일반 대중이 운영과 프로그램 제작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기존의 방송에서 소외당했던 소수 집단이나 사회적 약자들에 발언과 표현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메시지를 산출하며, 더 많은 공동체(community) 구성원의 참여를 지향하는 매체로(여기서 공동체란 '지리적 장소, 이해관계, 언어, 문화 또는 인종적 속성을 공유하는 인간 집단'으로 정의할 수 있다), 대개 실재하는 다수의 공동체 라디오 방송국이 어떤 지리적 공간을 기반으로 삼고 있으므로, 공동체 라디오는 특정 지리적 공간을 중심으로 이해관계나 문화 등을 공통으로 하는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차재영, 2007).⁹⁾ 한국사회가 급속한 도시화 과정과 신자유주의의 가속화로 점점 더 불안정한 주거상황이 확산되고, 이로 인해 오랜 정주 기간에 근거한 공동체 구성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지리적 공간을 기반으로 하되 그 외적인 요소들도 공동체를 형성하는 주요한 요소라는 차재영(2007)의 언급은 주목할 만하다. 여기에 더해 미묘한 차이일 수도 있겠지만, '지리적'이라는 표현을 '인문지리적'이라는 표현으로, 좀 더 인적인 요소의 느낌이 가미된 표현으로 사용하는 것을 제안하고 싶다. 공동체는 물리적 공간을 점유하고 이를 전유하는 인간 집단의 사회문화적 실천을 통해서 구체화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서 최성은(2014)도, 공동체에 대한 정의를 함에 있어서, 지리적 공동체와 사회 문화적 공동체(이해·관심 공동체)

9) 본 연구의 대상인 마포 FM 이외에도, 6개의 공동체 라디오도 1차적으로 지리적 기반을 근거로 활동하고 있다.

로 나누어서 접근하는 시각을 취하지만, 궁극적으로 공동체는 공간적 의미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적인 의미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고 언급한다.

공동체 라디오의 정체성과 관련하여 최성은(2014)은 대안 미디어론에서 주장하는 바처럼 공동체 라디오가 항상 주류 미디어에 대항적이거나 대안적 콘텐츠를 생산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지는 않으며, 공동체 라디오에 참여하는 주체들 역시 그 위치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이질적이며 다중적임을 강조한다. 대안 미디어적 관점만으로는 공동체 라디오와 참여자들의 다양한 정체성을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로드리게스가 말한 시민 미디어론적 접근은 공동체 라디오의 다양한 영역과 참여자들의 다양한 정체성을 이해할 수 있는 틀을 제시해 주는 면이 있다. 로드리게스는 다양한 주체들이 주도하고 있는 대안 미디어의 다양성을 담아내기 위해 ‘대안 미디어’라는 개념 대신 ‘시민 미디어(citizens’ media)’라는 개념을 제안하고 있다(김은규, 2005; 유선영, 2005; Rodriguez, 2001). 로드리게스는 공동체 속에서 사람들의 정체성은 다양하며 변화한다고 주장하며, 그들이 이질적이고 다중적인 위치를 가진다고 지적한다.¹⁰⁾ 이런 접근은 공동체 라디오에 관한 논의에서 다양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이 다양한 차원에서 실천해가는 ‘살아 있는 경험’(lived experience)을 보다 풍부하게 담아낼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로드리게스의 관점에서 보자면 시민 미디어는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영향을 미치는 고전적 의미의 미디어와 달리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는 미디어인 것이다(최성은, 2014). 복잡하게 얽혀있는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단순한(선형적/일방향적) 정의들로 환원시켜서는 커뮤니케이션 현상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고 로드리게스 등(Rodríguez et al., 2014)은 비판한다. 로드리게스 등이 언급한 공동체/대안/급진적/시민 미디어(community, alternative, radical and citizens’ media)¹¹⁾에 대한 네 가지 문제의식

10) 홀(1996)은 정체성에 대하여, 계몽주의적 주체개념-인간은 완전히 중심을 갖고 있는 통합된 주체로서, 이성/의식 및 행위의 능력을 갖고 있다고 보는-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취하며, 주체의 내면적 핵이 자율적이거나 총족적인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타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된다는 사회학적 주체개념을 기반으로 정체성 형성에 대해 접근하고 있다. 즉, 정체성은 자아와 사회 간의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된다는 것이다. 물론 문화적 정체성은 개인/집단을 둘러싼 문화 체계 속에서 재현되거나 다뤄지는 방식과 관련하여 형성되고 끊임없이 변형된다. 그러나 그런 접근 방식은 정체성 형성의 역동적 상호작용이 외재적 요인들에 의해서만 추동된다거나 구조적 요인에 의해 지나치게 규정을 받는다는 면만이 부각될 우려가 있다고 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동체 라디오를 매개로 한 문화적 실천을 통해 참여자들이 능동적으로 자기 정체성을 형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측면에서의 ‘상호작용’에 주목하고자 한다.

11) 로드리게스(2014)는 네 가지 명칭의 차별성에 대한 별도의 정의는 내리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이런 명칭의 차이에 대해서는, 특정 국면에 따라 시민사회 영역에서 사회변화를 추동하는 수단으로서 미디어를 전유하는 양식이 반영된 일련의 연속성 상에서-기존 미디어가 사회적 문제들의 해결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 소통 창구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비판적 문제의식을 담아내는 미디어 실천으로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본

은 공동체 라디오 연구에 중요한 비판적 논의의 지점들을 제공해준다.

로드리게스에 따르면, 첫째로, 역사적 맥락에 기반 하지 않고 미디어에만 천착한 커뮤니케이션 연구는 ICT를 사회 변화를 추동하는 주요 요인으로 오해할 소지를 낳게 한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이런 기술결정론적 시각에 대해, 콜롬비아의 문화연구자 헤수스 마틴 바르베로(Jesús Martín Barbero)는 도구적 관점의 미디어로부터 과정으로서의 매개현상으로(from 'the media' to 'the mediations') 관점을 전환하여 커뮤니케이션 현상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Barbero, 2006; Rodríguez et al., 2014 재인용). 즉, 커뮤니케이션 현상은 사회적 맥락에 따른 행위자들 간의 역동적 상호작용에 따라 다차원적으로 구성되므로, 이를 파악하기 위해 매체중심적 시각에서 벗어날 것을 촉구한다. 이러한 관점을 공동체 라디오 연구에 적용하면, 공동체 라디오 이용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지역 공동체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이 어떤 맥락에서 벌어지는지 그 역사적/사회적 맥락들을 풍부하게 고려하고 기술하는 연구가 바람직한 연구임을 알 수 있다.

둘째로, 로드리게스는 미디어와 ICT를 정치경제학적 틀에서 분리한 접근은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음을 지적한다. 잭 큐는 ICT와 관련한 커뮤니케이션 현상은 맥락적 진공상태(contextual vacuum)에서 발생하지 않으며, 중국 도시의 사례에서 보듯, 계급, 이동성, 연령, ICT 생산지로부터의 근접성 등이 디지털 양극화(the digital divide)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고 언급한다(Qiu, 2009; Rodríguez et al., 2014 재인용). 이러한 관점을 견지한다면, 예를 들어 우리는 정보와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니즈(needs)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동자나 이주민이나 노인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물질적 조건 속에서 어떻게 모바일이나 인터넷을 사용하는지 그 구체적 양상들을 들여다 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로,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기존의 단순한 정의가 얼마나 문제적인지 로드리게스는 지적한다. 특히 이 부분과 관련하여, 로드리게스는 콜롬비아 남부에 위치한 공동체 라디오 방송국-Radio Andaquí-의 지역 공동체와의 상호작용에 대한 본인의 연구 사례를 소개하면서,¹²⁾ 단순히 미디어가 전달하는 정보 전달 기능에 천착할 경우, 그 이면에 깔린 복잡다단한 커뮤니케이션 현상을 읽어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Rodríguez, 2011; Rodríguez

연구에서는 그런 측면에서 해당 용어의 차별성에 대한 별도의 정의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밝힌다.

12) 로드리게스는 콜롬비아 남부 지역의 공동체 라디오 Radio Andaquí가 기획한 '크리스마스 장식 대회'를 예로 든다. '크리스마스 장식 대회'라는 특정 기획을 매개로, 공동체 라디오 Radio Andaquí는 지역 공동체 구성원들 간의 적극적인 상호작용-역동적 커뮤니케이션-의 허브 내지 촉매제로서의 역할을 자임하였고, 궁극적으로 지역 공동체 구성원들의 역동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내전으로 피폐해진 지역의 삶과 지역 문제의 해결에 기여하고 있다고 로드리게스는 설명한다(Rodríguez, 2011 재인용).

et al., 2014 재인용).

넷째로, 사회변화의 맥락에서 커뮤니케이션 현상을 접근하지 않는 연구 경향은 현상으로부터 생산되는 풍부한 지식들을 담아내지 못함을 로드리게스는 경고한다. 사회변화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연구(일명 Communication for Social Change, CfSC) 분야에 따르면, 사회운동들이 어떻게 ICT를 사용해 왔고 또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즉 그 전유방식에 대한 맥락적 고찰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논문에서 연구자들은 중국 교외 지역 여성들의 건강 이슈에 대해 연구한 왕(Wang, 1999)의 참여형 커뮤니케이션 기획 'Photovoice'를 사례로 제시하고 있다.¹³⁾

공동체 라디오의 주요 특징은 청취자들이 직접 프로그램을 제작하면서, 사회에 자신의 이야기를 말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다(한선·이오현, 2008a). 참여 주체로서의 청취자들은 우리 사회의 보통 사람들이며, 공동체 라디오는 자신들의 이야기로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해석된다(강진숙·이은비, 2013). 그러나 이런 시각은 공동체 라디오가 갖는 지역 공동체 내에서의 다이나믹한 포지션과 소통을 매개하는 플랫폼으로서의 다양한 역할들을 담아내기에는 다소 정적인 접근이라고 본다. 기존 매스 미디어와의 차별성 측면에서, 지역적 기반에 근거한, 지역성을 담은, 지역 공동체 구성원들의 참여를 중심으로 한 콘텐츠 구성 및 제작 방식에만 초점을 두고 공동체 라디오에 대해 접근하는 것은, 공동체 라디오가 다양하게 전유되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자칫 또 다른 차원의 스펙트럼을 담아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열린 가능성을 포착/강화할 계기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위의 논의에서 로드리게스 등(2014)이 언급하고 있듯이(셋째와 넷째 포인트), 그리고 마틴 바르베로(2006)의 주장대로(첫째 포인트) 매체중심적인 기능적 논의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미디어를 매개로 한 상호작용에 주목하여 공동체 라디오와 지역 공동체 구성원들의 상호작용이라는 커뮤니케이션 현상에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것도 그런 한계를 벗어나고자 하는 시도와 맞물려 있다. 단지 지역성이라든가 소수자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채널로서 정적으로 고정된 차원의 정체성이 아니라, 공동체 라디오는 국면/맥락에 따라 미디어 내외적인 구성요소/상황요소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다양한 소통방식을 통해 끊임 없이 정체성이 구성/재구성되는 매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기존의 외국 공동체 라디오와 국내 공동체 라디오의 비교분석

13) 해당 연구에 대한 왕의 설명을 참조하자면, 포토보이스(Photovoice) 기획은 단지 이미지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자들이 생산한 이미지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토론함으로써, 해당 이미지들에 대해 의미를 부여/공유하거나 해석을 시도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이를 통해 왕은 교외 거주 여성들이 삶과 건강 상태에 대해 상당하는 맥락을 훨씬 잘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한다(Wang 1999; Rodríguez et al., 2014 재인용).

이나, 대안 미디어로서의 공동체 라디오에 대한 논의를 넘어, 지역 공동체에 밀착된 공동체 라디오가 공동체 구성원들과의 밀접한 상호작용 속에서 어떻게 시민 미디어로 위치 지워지고 정체성을 구축해 나아가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 과정에서 지역 공동체 구성원들이 수행하는 다양한 층위와 갈래의 문화적 실천들이 공동체 라디오의 시민 미디어로서의 정체성 형성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용하는지(어떤 효과를 발휘하는지) 밝힐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작업에는, 예를 들면 공동체 구성원들의 제작에의 참여 방식 및 그 함의에 대한 논의, 그리고 지역 공동체 구성원들이 만들어낸 자생적 모임들과 지역사회 운동을 펼치는 시민사회단체 사이의 연계 과정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시도를 통해 대안성과 콘텐츠에 대한 논의에 간혀있는 공동체 라디오 관련 학술적 논의가 시민성 및 공동체적 삶의 상호작용이라는 방향으로 확장되고, 한 발 더 나아가 지역 네트워크 미디어로서의 가능성에 대한 논의로도 이어지길 기대한다.

3. 연구대상과 연구방법에 대하여

전술했듯이, 지금까지 진행된 공동체 라디오에 대한 사례 연구들은 개별 사례들에 대한 연구들을 통해 공동체 라디오가 생산해 내는 콘텐츠에 주목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 이런 접근은 주류 미디어가 잘 담아내지 못하는, 지역성(locality)의 구현이라는 대안 미디어로서의 특성을 잘 보여주지만, 자칫 내용 중심적인 접근으로 공동체 라디오의 정체성을 규정지을 수 있다는 한계를 내포하고 있기도 하다. 미디어가 생산해내고 있는 콘텐츠 중심의 접근만으로는 공동체적 삶이 묻어나는 매체로서의 공동체 라디오의 정체성을 잘 그려내기에는 다소 부족한 감이 있다.

지역 공동체 운동은 신사회운동¹⁴⁾과 궤를 같이한다. 대개의 신사회운동에서 나타나 는 특징들은 해당 운동을 조직·운영하는 과정에서 미디어의 역할이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는 것이다(Downing, 2001). 이에 본 연구는 마포 FM을 사례로, 공동체 라디오 운

14) 1970년대 이전까지는 주로 계급관계를 배경으로 한 운동이 전개되었다면, 1970년대 이후에는 인권운동, 환경운동, 여성운동, 학생운동, 종교운동 등의 새로운 사회운동이 운동의 목표와 주제, 사회적 기반과 주제, 대상과 전략 등에서 이전의 사회운동들과 현저한 차이를 보이면서 전개된다. 신사회운동에 대한 논의들은 현대 서구사회의 구조적 성격을 성찰하고, 정체성과 문화적 가치 지향이 사회운동에서 지니는 중요성을 재발견하는 데 기여하였다. 또한 이런 논의들을 통해 사회운동에서의 사회적 불만이나 정체성, 사회적 연대와 문화적 지향의 중요성 등이 부각되었다. 신사회운동은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주목하고 사회와 개인의 문화적 정체성과 문화적 투쟁을 강조한다.

영진들과 프로그램 제작/진행 참여자들을 중심으로 수행한 심층인터뷰를 통해, 지역 공동체와 공동체 라디오의 상호작용과 지역 공동체 구성원들의 문화적 실천이라는 측면에서 공동체 라디오의 정체성에 대한 탐색적인 고찰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마포 FM이 등장하기 이전부터 마포구에는 ‘공동육아’ 공동체를 모태로 성미산 마을을 중심으로 지역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었다(박복선, 2010). 성미산 마을 공동체는 이후 성미산 지키기 운동을 통해 외부에 널리 알려지기 시작해서, 마을 카페와 마을 극장 등을 비롯하여 대안적인 형태의 주거 공간¹⁵⁾과 생활협동조합 등에 이르기까지 지역 공동체 문화의 복원 및 활성화와 관련한 다양한 시도들이 전개 중인 곳이다.

한국의 도시화율은 1960년대 39.1%에서 2003년 88.4%에 달하기까지 40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 이런 급속한 도시화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무분별한 매립과 언덕 깎기를 통한 대지 확보, 도시경계의 지속적 확대, 공장 지대의 확대, 지하철 건설과 고가도로의 건설, 대형교량과 육교, 초고층 빌딩의 확산, 강남 개발과 신도시 건설 등을 통한 부도심과 일산, 분당 등과 같은 위성도시의 확산 등으로 진행되었다. 지역 공동체의 토대가 되는 정체성은 지역 구성원들과 지역 내 다양한 커뮤니티 그룹들 간의 장기적인 상호작용과 축적된 경험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데, 한국사회의 도시화는 그런 장기적인 상호작용과 경험들이 축적될 틈도 없이 급격한 양상으로 진행되어, 결과적으로 농촌 공동체의 침체 및 와해와 도시 공동체의 미발달 및 변형을 초래했다(이재열, 2006).

이런 사회적 배경 하에 시민사회 차원에서 지역 공동체 형성을 위한 자구적인 노력이 시도되어 왔으며,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마포구 성미산을 중심으로 형성된 성미산 마을 공동체이다. 마포 FM은 성미산을 중심으로 한 지역 공동체 운동의 활성화와 맞물려 홍대 앞에서 독립문화 활동을 하는 문화협동조합 등의 단체들이 함께 힘을 모아 2005년 9월 출범한 공동체 라디오다.

마포 FM의 프로그램은 소수의 상근 활동가들의 제작 지원과 공동체 라디오에 관심 있는 사람이나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서 제작되고 있다. 방송의 주체가 자신을 재현하는, 자신의 목소리로 말하는 참여형 제작방식이다.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자신을

15) 대안 주거 공간인 소행주(‘소통이 있어 행복한 주택’의 약칭)는 입주자 모집부터 설계·시공, 입주 후 관리까지 주민들이 직접 하는 모임을 통해 운영되는 곳으로, 2016년 기준으로 열 번째 주택을 짓고 있는 중이다. 인터뷰 대상자 D와의 인터뷰를 위해 소행주 1호 주택에서 인터뷰를 진행한 바 있다. 공동 거실과 주방 등이 유기적으로 이어져 있어서, 기존의 아파트나 빌라와 같이 독립적으로 구성된 주거 공간이 아니라, 입주자들과의 소통을 위해 설계된 곳이라는 이미지가 강하게 와 닿았다. 주택 자체가 하나의 작은 공동체를 상징적으로 재현하고 있는 셈이다.

표현하는 수단으로서 마포 FM에 참여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마포 FM의 프로그램 제작 방식은 공동체 미디어가 갖는 강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Berrigan, 1979).¹⁶⁾

참여형 제작방식이라는 측면에서 우리는 두 가지 함의를 도출해낼 수 있다. 하나는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통한 콘텐츠 생산이라는 측면에서 지역성을 띠고 있으며(예: 지역 소식의 전달), 또 하나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참여를 통해 공동체 미디어가 미디어 외적인 환경들과 유기적인 상호작용 속에서 정체성을 형성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전자는 기존의 공동체 미디어에 관한 연구들에서 강조되고 있는 바로, 미디어 생산물에 지역성(locality)이 반영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내용 중심적인 접근에 해당한다. 후자는 내용 중심적 접근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으로, 공동체 미디어가 지역 공동체와 어떻게 유기적으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 관점을 제공한다. 전자가 정적인 측면에서 공동체 미디어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있다면, 후자는 공동체 미디어의 정체성이 끊임없이 역동적으로 구성/재구성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문화적 실천을 통해서 공동체 미디어로서의 정체성이 구성/재구성된다는 것은 공동체 구성원들이 공동체 미디어를 중심으로 어떤 실천들을 하고 있는지 그 실천 양태에 따라 각각 다르게 공동체 미디어의 정체성이 형성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단순히 지역성의 반영으로서가 아니라, 구성원들의 능동적인 실천의 양태에 따라 공동체 미디어의 정체성이 구성/재구성된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논의를 더 확장하여 지역 공동체와의 관계 속에서 공동체 미디어가 스스로의 정체성을 어떻게 구성/재구성하고 있는가에 대한 논의까지 고찰을 시도해보고자 한다.

인터뷰 대상은 두 가지 층위에서 접근하였다. 한 층위는 마포 FM의 상근활동가들을 대상으로, 또 한 층위는 공동체 라디오의 제작 과정에 참여했던 지역 공동체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상근활동가들은 개국 초기부터 지금까지 마포 FM을 이끌어 왔던 본부장과 활동하다가 퇴사한 프로그램 제작 담당 PD들이며, 방송제작에 참여했던 지역 공동체 구성원들은 지역사회 활동가이자 주민들로 <표 1>과 같다.

인터뷰 대상자 선정에는, 질적 접근을 하는 현장 중심의 문화연구에서 쓰이는 가장 보편적인 인터뷰이 리크루트 방식 중 하나인 스노우볼링(snowballing) 샘플링 기법을 활용하였다.¹⁷⁾ A, B, C, D와의 심층 인터뷰는 2012년 7월부터 10월 사이에, E와 F와의 심층

16) Community media are the means of expression of the community, rather than for the community (Berrigan, 1979).

17) 스노우볼링 방식으로 인터뷰 대상자를 섭외한 이유는 무엇보다 연구자 본인이 성미산 마을공동체 거주자가

표 1. 마포 FM 관련 인터뷰 대상자 프로파일

구분	별명	직업	성별	연령
A	마당	마포 FM 본부장	남	50대
B	N/A	마포 FM (전) PD	여	30대
C	안성택	민중의 집 활동가	남	30대
D	느리	소행주 1호 거주 성미산 마을공동체 활동	여	40대
E	N/A	마포 FM (전) PD	남	30대
F	라디오네	출판사 편집자	남	30대

인터뷰는 2016년 4월부터 5월 사이에 진행하였으며, 마포 FM 사옥과 모 여대 인근 커피전문점, 성미산 마을의 공동 주거 공간, 시민사회단체 사무실 등에서 반구조화된 일대일 인터뷰 형태로 30분에서 1시간 30분에 걸쳐 이루어졌다.

4. 연구결과

1) 지역 구성원들의 문화적 실천(제작 참여)과 정체성의 재구성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하는 <톡톡 마주보기> 프로그램 제작을 1년 반 정도 참여했어요. ... (중략)... 성미산 마을 소식을 덧붙여서 같이 전해드리는 그런 방송이었는데, 개편 때에 다양한 지역 뉴스, 성미산 마을 밖에 있는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을 담고 싶다고 하면서, 그 멤버를 보강한 것이죠. 저에게 제안을 해주셔서 제가 민중의 집에서 일어나는 소식 플러스 다른 지역 소식을 전하는 역할을 해서 참여를 하게 됐죠. (인터뷰 대상자 C)

아니라는 제약 요소 때문이었다. 그렇지만 인터뷰 대상자들은 마을공동체와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들이었기에, 이들의 개인적인 판단과 강력한 추천에 근거하여, 연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추천받아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참고로 인터뷰 대상자 수가 6명인 점은 본 연구에서 아쉬움으로 남는다. 그러나 6명의 인터뷰 대상자 모두 마포 FM과 지역 공동체 활동과 관련하여 주요한 지점에서 활동했던 이들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현재 한국사회에서 공동체 라디오를 비롯하여, 팟캐스트 형식의 대안적 미디어는 미디어 실천과 관련하여 참여자의 수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를 고려하면, 6명이라는 양적인 요소가 본 연구의 문제의식을 담아낼 수 없을 정도로 부족한 숫자는 아니라고 조심스럽게 견해를 밝히는 바다.

월화수목금, <톡톡 마주보기>는 진행자도 다르고, 그 내용도 다르고, PD도 다르고, 요일마다 다 특성이 있는데 …(중략)… 마을을 담는 것을 특성화했기 때문에, 맨 처음에 여는 말 하고, 그다음에 마을 극장 소식이랑, 문화로 만나게 되는 사람들 인터뷰, 그다음에 전반적인 마을 소식, 그다음에는 민중의 집에서 안성택이 나와서 민중의 집 소식, 이런 꼭지들이 있었어요. …(중략)… 제 삶이 그런 것들을 담고 있으니까, 오늘 뭐가 있어. 나는 홈페이지 저지 대책위에 회의에 갔어. 그 내용을 전할 수 있고, 또 성미산 생태공원 만드는 생태숲 모임에 내가 참여하고 있으니까, 그 소식을 전하고…. (인터뷰 대상자 D)

실지로 방송운영진을 뽑고 있었던 시기라. 그것을 보고, 공고에 라디오라는 것을 보고 지원을 하게 된 거구요. 그래서 신음발사의 운영진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마포 FM에 활동가로 연결이 되어서 …(중략)… 신음발사라는 그룹만 놓고 보자면, 완전하게 일치하는 부분 집합의 그룹은 아니지만. 인디음악, 아니면 음악문화, 지역문화를 다루는 곳. 지역적 인접성 등에서는 조금은 연이 닿아 있는 곳이었던 것 같구요. 오히려 제가 신촌과 전혀 관계가 없는데, 내가 액티브한 것을 찾다가, 신음발사 운영진으로 시작해서, 그쪽에 연이 닿은거죠. (인터뷰 대상자 E)

내용 중심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이런 방식은 지역성을 충실히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역 소식의 전달 이외에 유의미한 것은 지역 사회 활동가가 자신의 활동과의 연장선 상에서 프로그램 콘텐츠를 구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참여형 제작방식을 기반으로 지역 공동체 활동가를 통해 지역 공동체와의 접점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했던 구성원들은 일정 부분 지역 공동체 운동과 관련된 이들이었으며, 이들은 공동체 라디오 참여 경험을 통해 제작과정 자체보다 지역 사회와의 관계망을 더 확장해서 형성할 수 있었다는 데 큰 만족도를 나타내기도 했다.

개인적으로도 일주일에 한 번씩 방송에 나가서 라디오 방송한다는 게 되게 큰 활력이었거든요. 뭔가를 일종의 생산의 영역 같기도 하고요. …(중략)… 방송과 어떤 것을 연결시켜 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 방송이 굉장히 많은 것들을 제공을 하거든요. 그런 윤희유 역할, 공기 같은 역할을 마포 FM이 해준 것이고, 플랫폼 역할. 민중의 집 입장에서 보면, 민중의 집 이야기를 방송을 통해서 평소 때에 전달할 수 없는 대상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이죠. …(중략)… 이 관계는 연결되어 있었다는 느낌이 있어요. …(중략)… 되게 많은 인연들도 만들어 냈을 거예요. 저희도 그랬거든요, 저희도 방송에 인터뷰

하거나 초대하거나 전화통화 인터뷰했던 사람들과 지금도 많이 만나고 방송으로 만든 인연들이 지금도 계속 있거든요. 그런 관계망, 새롭게 만들어진 관계망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인터뷰 대상자 C)

제작과정에 참여한 것을 통해 소통의 계기가 형성되었다는 측면에 방점을 두고 있었다. 즉, 생산해내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제작과정의 참여와 제작과정 바깥의 연결고리 속에서 사람들과의 연대감을 강화하게 된 것, 즉 공동체적 삶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다.

최근 소셜미디어의 등장으로 사회적 연결망은 이전에 비해 더 다양해지고 많아졌다는 의견들도 있음에 비해, 그에 비례해서 인간관계의 밀도가 강화된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연결망은 커져만 가는데(소통의 양적 풍요로움), 그에 상응한 인간관계의 깊이(소통의 질적 밀도)는 기대했던 바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참여라는 공동체 라디오를 통한 실천은 그런 간극을 채워주고 있는 지점이다.

민중의 집에서 하는 사업 중에, 사람책이라고, 휴먼 라이브러리, 그래서, 책을 대출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신청해가지고 만나잖아요. 그러면 제가 사람책이면 저를 대출하겠다고 신청한 독자를 만나는 거예요. …(중략)… 그렇게 만난 사람하고, 그 친구가, 제가 성미산 생태 숲이라는 모임에서 성미산 생태공원이 주민참여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만드는 PPT에 웹 디자이너니까 PPT 만드는 걸로 결합해주고, 또 다른 독자로 만났던 친구는 성미산 생태 숲에서, 성미산에서 공연이랑 장터를 열었을 때, 자기가 짜투리 천 가지고 만들 것을 가지고 와서 장터를 같이 참여해주고, 이렇게 관계 맺는 것? 방송할 때도 그렇고…. (인터뷰 대상자 D)

여기 마포가 출판사들이 많기 때문에, 출판문화의 메카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 소개 프로그램이 없다는. 본부장님이 그것을 알고 계셔서, 책 소개 프로그램을 하실 분을 찾습니다라고 공고가 났더라고요. 그걸 보고서, 바로 지원서를 작성한 거예요. …(중략)… 마포 FM 프로그램들을 보니까, 책 소개 프로그램이 한 개인가 두 개인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정확하게 책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고, 낭독을 하거나 하는 정도여서. …(중략)… 한번 개인적으로 이런 프로그램도 있으면 좋겠다고. 제가 갖고 있는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고. (인터뷰 대상자 F)

실천은 자기 정체성의 구성/재구성/강화와 맞닿아 있다. 인터뷰 대상자들의 진솔이 보여주듯, 주류 미디어와 달리 공동체 라디오가 갖는 차별성은 미디어 수용자들이 자신들의 직접적인 참여로 이루어지는 실천을 통해(문화적/미디어 실천) 사회적 관계망을 구축하고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을 재구성한다는 것이다.

현대 사회의 복잡다단한 현실적 구조는 끊임없이 개인에게 국면에 따라 정체성을 구성/재구성할 것을 요구한다. 문제는 그것이 주체와 상황적 요소들과의 능동적인/긴밀한 상호작용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개의 경우 일방적으로 정체성의 구성/재구성을 강요당하기 쉽다는 것이다. 인터뷰 대상자 F는 프로그램 기획단계에서, 어느 정도 규모가 되거나 자기 마케팅 능력이 있는 출판사들이 아니라, 국내저자에, 작은 규모의, 괜찮은 콘텐츠로 구성된 기준으로 책을 선정한다고 말한다. 최근에는 지대가 상승해서 다수의 출판사들이 흥대를 떠나고 있는 추세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흥대 근처는 출판의 메카라고 불린 만큼 중소 규모의 출판사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다고 한다.

제가 전달하려는 것은, 내 사는 소소한 일상을 담았다 라기보다, 제가 직업을 주부라고 안 쓰고, 마을 활동가라고 쓰는데, 성미산 마을 활동가로서 살아가고 있으니...(중략)... 갖고 있는 미덕 중의 하나는, (주류)방송은 그러면, 전문가들이 다 해버려서, 나는 어떻게 우연이라도, 지나가다만 찍혀도, 막 좋아하고, 뉴스에 나왔다가 되는 거지, 자기가 화제의 중심이 되는 인물이 될 수 없다면, 지역 공동체 라디오는 내가 주인공이 될 수 있고, 내 이웃이 주인공인 그런 얘기들을 담아내잖아요?...(중략)... 그리고 또 레즈비언 방송도 있고...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사람들이 먼저 제안을 했지만, 그것을 담아내는 그릇이 되어준 것. ...(중략)... 어르신들은 아침 일찍 어르신 방송 하고, ...(중략)... 내가 직접 방송을 진행하다니, 내가 이런 기기를 만지면서 큐 싸인을 하고, 그런 삶의 설렘도 주는 거죠. 다른 KBS가 주겠어요? 뭐 어디가 주겠어요? 그런 것들이 사실 많이 있죠. (인터뷰 대상자 D)

방송 내용은 자신의 삶이 묻어난 내용들로 구성하고 있었다. 인터뷰 대상자 D는 이 과정에서 두 아이를 키우는 아이의 엄마이자 주부라는 정체성에 더해, 마을 공동체 활동가로서, 그리고 마포 FM 방송 참여자/제작자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재구성하고 있었다.¹⁸⁾ 인터뷰 대상자 F도 방송제작 참여라는 문화적 실천을 통해서 현재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18) 인터뷰 이후에 인터뷰 대상자 D는 자신의 공동체 라디오 활동을 책으로 엮어내었다. 김우 (2012). <느리의 내 이야기: 조금 나쁜 엄마면서 걱정 없는>. 서울: 펍사리.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으며, 이런 문화적 실천 과정이 자신의 정체성을 재확인하고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음을 말하고 있다.

방송하면서 저는 왜 방송을 계속하고 싶었을까 그랬을 때, 대본을 써서 더 매력적이었어요. …(중략)… 내가 쓰고 싶었던 게 이 말인가, 그러면서 전달하고자 하는 욕구들, 누군가는 내 글을 읽어주고, 내 방송을 들어주고, 소통하고자 하는 욕구들, 그런 것들이 매력적이었던 것 같구요. …(중략)… 제가 이번에 내는 책이 그 3년 동안 썼던 대본 중에, 그 음악 틀고, 내가 일기처럼 썼던 것을 묶어서 내는 거거든요. 제목은 〈내 이야기〉 …(중략)… 뭘 원했냐면, 오히려 엄마는 이렇게 살아야 돼, 아내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며느리는 이래야 맞지, 그래서 우리는 가난하지만 그래도 눈물나게 사랑한다 여보야, 이런 식의 훈훈한 그런 거,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오히려 더 발칙할 수도 있고, 또 불온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엄마가 다 있어 싶을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을 던져보겠다 라고 시작한 거였거든요. (인터뷰 대상자 D)

여기 대부분의 출판사들은 1인 아니면 3인 정도의 소규모로, 국내에서 대부분을 형성하는데, 그런 출판사들은 물론 책을 팔기는 하겠지만, 실은 대부분 잘 안 팔리는 책들을 출간하고…(중략)… 저자 분을 모셔서 저와 같이 이야기를 하고, 그분의 말을 듣는 거예요. 어떻게 처음에 기획을 하게 되었는지, 어떻게 해서 만들게 되었는지. 만들 때 힘들었던 점 없으신지. 이 책에서 어디어디는 어떤 의미인지. 그렇게 얘기를 듣는 거예요. …(중략)… 이게 개인적으로 왜 중요하냐면은, 저한테는 어떤 의미냐면, 한 5년, 6년차, 제가 6~7년차 지나가면서부터는 약간 없는 거죠. 일인 거죠. 저는 출판에 대한 느낌이 어떤, 책만 파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문화적으로 독서행위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 높이는 거고, 중요한 독서문화활동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중략)… 직업윤리로서 소명 의식 같은 게, 필요했던 것 같아요. 뭔가 문화활동을 해서 …(중략)… 사실 그 전에 같았으면, 다른 직업을 찾아볼까, 다른 것을 해볼 생각을 많이 했을 텐데, 공동체 라디오를 하면서 직업인으로서의 소명 의식이 강화되고 좋아졌어요. (인터뷰 대상자 F)

직접적인 참여를 통해 스스로 문화적 정체성을 재구성한다는 측면에서 공동체 라디오는 구성원들의 문화적 실천을 엮어내는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하다. 이렇게 지역 공동체 구성원들이 공동체 라디오를 전유하고, 이를 통해 스스로 정체성을 재구성한다는 측면은 공동체 라디오의 정체성을 재조명하는 단초를 제공해 준다. 로드리게스의 언급에 기대어

보면, 시민 미디어의 역할은 주류 미디어가 전해 주지 못하는 대안적 정보를 전달하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이 자신들의 기호와 언어를 통해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고, 자신들의 문화와 정체성을 재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는 데에도 있다(Rodriguez, 2001; Atton & Hamilton, 2009; 최성은, 2014 재인용).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하면 지역 안에서의 지역 미디어가 지역에 기여하는 바를 계속 이야기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공동체 라디오가 생긴 이유 중에 또 하나의 큰 이유가 뭐냐 하면 기존의 방송 언론 미디어들이 소수 거대 자본 이런 것에 의해 독점이 되고 그 포커스를 맞추는 것도 거대한 흐름들, 그리고 정말 거대한 사람들한테 포커스를 맞추니까 작은 소리에 귀 기울이는 매체가 없는 거예요. (인터뷰 대상자 B)

라디오라는 매체는 수용자들의 청취 습관에만 삶이 묻어나는 게 아니다. 공동체 라디오의 경우에는 참여형 제작과정이라는 문화적 실천을 통해서 엮이는, 즉 지역 공동체 구성원들과의 상호작용이라는 측면에서 삶이 묻어나는 매체라고 다시 정의해 볼 수 있겠다. 이런 접근은 생활 속 매체라는 측면에서 라디오가 작업 공간이라든가, 운전 중에, 가사생활 중에 등 삶이 같이 묻어난 매체라는 접근과는 또 다른 차원의 접근이기도 하다.

좋은 거는 사람이.... 도구가 아니라 목적이 되었을 때, 그 안에서 내 가치도 발견하게 되는 건데, 내가 부속물, 나사와 같다고 느낄 때, 사람들이 비애감을 느끼잖아요? 근데, 방송을 할 때, 내가 아까 말한 것처럼, 앵무새가 되고 싶지 않았다 그랬잖아요?...(중략)... 적어도 제가 마포 FM 방송을 하면서, 우리는 나사는 아니었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터뷰 대상자 D)

인터뷰 대상자 D는 공동체 라디오 방송활동가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제작방식에 있어서 기존 지상파 라디오의 제작방식과의 차별화를 통해서 재구성하고 있었다. 공동체 라디오가 제작방식에 있어서 열린 참여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은, 방송 객체로서가 아니라 방송 주체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구현할 수 있다는 강점으로 부각된다.

물리적 공간이나 지리적 공동체 개념이 아니라 사회문화적 공동체라는 측면에서 정체성에 대한 언급도 하고 있었다. 물론 공동체 라디오는 두 가지 측면을 모두 담고 있을 때 더 강점을 드러낸다. 그러나 서울시에서 주거의 불안정으로 인한 인구 유동성의 증가는 해당 지역의 공동체 문화 형성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 또한 부정하기 힘든 사

실이다.¹⁹⁾ 이런 측면에서 현대 도시에서 오랜 기간 정주에 바탕을 둔 지리적 공동체를 찾아보기는 쉽지 않다. 인터뷰 대상자 C는 지역적인 측면에 국한되지 않고, 정체성이라는 측면에서 언급을 하기도 하였다. 이런 접근은 소수자의 공동체 라디오 방송 참여를 통한 문화적 실천을 통해서 나타나기도 한다.

커뮤니티나 공동체라는 게 로컬적인 의미만 있는 게 아니니까요. 정체성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마포 FM 내에도 그것을 대변하는 방송이 있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하죠. 정체성에 관련된 게, 예를 들어 제주도에 사는 분 얘기이지만, 나와, 내가 관심 있는 사람의 얘기일 수도 있는 거죠. 나랑 관심사가 같거나, 내가 관심 있어 하는 대상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중략)… 그런 동질감이 있고, 그들의 소식이 되게 궁금하고, 그들에게 나를 알리고 싶은 욕심이 생기고, 그런 거거든요. 로컬적인 의미는 아니고, 정체성 중심으로 가능하거든요. (인터뷰 대상자 C)

이거는 사실, 그냥 방송을 해야 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 라디오에서 방송을 해야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중략)… 커뮤니티에 속해 있고, 방송을 꾸준히 하면서, 우리 커뮤니티에 관심을 가지는 다른 사람이 생기고, 우리가 어떤 커뮤니티인지 밝히기 힘든 사람일수록 더 더욱 한 명 한 명이 소중하고, 한 명 한 명끼리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을, 너도 그렇지 않나라고, 너도 한번 들어와 봐 같이 이야기 하자. 너는 어떻니,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리가, …(중략)… 공동체 라디오의 가치라고. (인터뷰 대상자 E)

2) 지역성/대안성/콘텐츠 중심에서 시민성/공동체성 중심으로의 진화

아까도 얘기했듯이, 마포의 특성을 얘기하기에는, 마포는 하나의 도시죠. 도시. 그냥 서울 안에 있는 어떤 위성도시 같다는 …(중략)… 특징이라고 해보았자, 인구학적 특성과… 좀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산다거나, 홍대가 있어서 문화적으로 조금 독특한 지리를 갖고 있다거나… (인터뷰 대상자 C)

19) “요즘에 옆집에 누가 죽어나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터전 안에서 도시라는 차가운 문화 위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작은 마을의 끈끈함을 살려내는 공동체 라디오를 비롯해서 이런 활동들을 해나가는 것이, 어떤 분들은 이리거든요, 도시에서 마을 문화를 만드는 것 자체가 가능할까 하는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인터뷰 대상자 B의 진술 중에서 발췌)

‘마포 FM이 지역성을 얼마나 잘 구현해내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다소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소도시 단위 규모에 해당하는 마포구에 대해 지역성을 담은 콘텐츠를 생산해 낸다는 강점만으로 공동체 라디오의 정체성을 설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런 한계가 극복되는 경우는 공동체 라디오가 마포구 내에서 다양한 여러 단체들과의 협업을 통해 유기적으로 공동체적 삶의 매개체로서의 기능을 시도할 때이다.

그러니까 공동체 라디오를 이야기를 할 때요, 일반적인 매체 경쟁력의 관점에서는 절대 이야기를 하면 안 되고요. 처음부터 공동체 라디오가 생긴 이유 자체가 지상파나 이런 거대 언론사, 방송사들이 주목할 수 없는 …(중략)… 지역에 집중하고 그랬을 때만 알려낼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알려내기 위해서는 제일 정확한 말씀들을 해주실 수 있는 게 공동체에 사는 주민분들이니까, 그렇게 태어난 것이 공동체 라디오인데, 제가 이제 고민을 했고 현장에서 많이 부딪혔던 어려움들은 뭐냐 하면, 그러려면 마을 미디어가 활성화가 되려면 마을 자체가 활성화되어 있어야 되는데, …(중략)…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방송국이면 방송국으로, 어떤 지역의 지역민과 소통하려는 하나의 단체, 뭔가 성격을 확실히 해서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해요. (인터뷰 대상자 B)

공동체 라디오가 공동체적 삶과 관련된 실천들에 유기적으로 개입하는 형태로 자리 매김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는 의견은 공동체적 삶과 공동체 라디오를 떼어 놓고 접근할 수 없다는 주장과 마찬가지로 할 수 있다. 마포라는 행정구역은 광활하다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넓은데, 이로 인해 지역의 소식을 다채롭게 담아내야 한다는 강박관념은 오히려 공동체 라디오가 좀 더 지역밀착형으로 스스로의 정체성을 생산해내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로 드러나고 있기도 하다.²⁰⁾ 이런 접근은 마포 FM 상근활동가의 시각과는 다른 측면이며, 더 나아가 공동체 라디오가 공동체적 삶이 묻어나는 그런 매체로서 기능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근본적인 물음을 던져준다.

연구 과정에서 주목하게 된 것은 한국사회에서 공동체 라디오가 처한 현실적 제약들

20) 이런 측면에서 마포구라는 도시단위 규모의 지역이 아니라, 인문지리적으로 인접한 몇몇 동 단위의 공동체 라디오를 통한 지역구성원들의 문화적 실천과, 공동체적 삶과 관련한 매개체로서 공동체 라디오의 역할을 들여다보는 후속작업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한다. 물론 마포 FM의 사례만으로도 그림을 그려낼 수는 있겠지만, 자칫 마포구라는 큰 규모에 함몰되어, 본 연구를 통해서 보고자 한 공동체적 삶과 공동체 라디오의 긴밀한 관계성이라든가, 구성원들이 공동체 라디오를 통한 문화적 실천 속에서 재구성해내고 있는 문화정체성(그리고 그 구체적 방식 내지 가능성) 등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한계점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송출범위의 제약, 재정적 문제, 실질적인 청취율 등)을 고려해볼 때, 내용 중심적인 접근만으로는 공동체 라디오만이 지닌 강점들을 살려내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한국사회에서 시민사회의 형성이 유럽이나 북미의 사회적 맥락과는 다르다는 것을 감안하면, 한국사회에서 공동체 라디오의 존재 양태라든가 생존전략 혹은 전유방식은 한국적 맥락하에서, 현장에서 도출된 이론화 시도와 더불어 모색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비록 선행연구들이 외국의 공동체 라디오를 중심으로 한 실천들과 이론들에 주목을 하였지만(한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활성화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현장 연구 과정에서 그런 이론적 틀만으로는 다 담아내지 못하는 지점들을 마주치게 된다. 이런 부분들은 7개의 인허가 받은 소출력 공동체 라디오 외에도 최근 다른 기술형식을 차용해서 등장하고 있는 공동체 라디오들의 미디어 실천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연구, 그리고 이를 통한 한국적 맥락의 공동체 라디오 관련 이론화의 모색을 통해서 담아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시민사회단체도 일부러 여기 이사를 와서, 뭐..., 여기 옆에 환경정의, 민우회, 또 함께하는 시민행동, 녹색교통 네 군데가 일부러 땅을 여기를 보고, 건물을 지어서 온 거고, 밑에 지하는 마을극장으로 ...(중략)... 이름이 마포 FM이고, 우리는 성미산 마을에 국한될 수 없어라고 할 때, 긴밀한 유대를 하면서 확장된 형태이어야 맞는 거지... (인터뷰 대상자 D)

그런 선에서 놓고 본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홍대 인디씬이 다른 곳이었다면, 우리가 그것을 다루었을까 안 다루었을까 생각해보면, 내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처럼 뮤지션을 자주 부를 수 있었다거나, 아니면 정말 우리 문화권인 것처럼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대안으로써의 포인트.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기존) 미디어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형식의 대안 미디어라면, 그래도 인디 음악을 많이 다룰 수 있는 거라 생각해요. (인터뷰 대상자 E)

마포 FM이 공동체적 삶이 묻어난 매체로 기능하는 것에 방점을 찍는다는 것은 한국사회에서 공동체 라디오의 발전 방향과 정체성에 대한 논의에서 중요한 함의를 던져준다. 다시 말해, 지방 소도시 이상의 규모를 갖고 있는 마포구를 단위로 공동체 라디오의 특성을 잘 살려서 구현한다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것이다. 공동체적 삶과의 긴밀한 상호작용 속에서 지역과 공동체 라디오의 유기적 결합이 어떻게 형성되는가 그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관계망이 없고 어떤 단순히 콘텐츠만 가지고는 경쟁이 안 되는 것이고요, 오프라인에서의

어떤 활동과 관계망이 풍부하게 있을 때 이 라디오 방송 콘텐츠가 힘을 갖고 경쟁력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충분하지 않아요. 오프라인에서의 활동이나 관계망이 충분하지 않고, 그리고 정말 서울이라는 곳은 개인과 개인 간의 유대 관계가 많이 깨져있고 파편화되어 있잖아요, 그런 상태인거죠. 특히 마포구는 지방으로 가면 조그만 소도시, 도시 하나잖아요. 엄청나게 크죠, 포괄하는 지역의 인구와 면적이. …(중략)… 경쟁력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오프라인이 매우 중요하다, 라디오 방송국이 중요하고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것들 관계망이나 활동들, 활동들과의 연관성이 굉장히 중요하죠. 연관성이 없으면 사실 별로 재미가 없어요. (인터뷰 대상자 C)

약 39만 명의 마포구 인구를 대상으로 지역 소식 전체를 마포 FM이 커버한다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음을 상근활동가들과의 인터뷰에서 발견하게 된다. 이것은 방송 프로그램 제작 활동에 참여했던 지역 구성원들의 인식에도 간접적으로 반영되어 있다. 청취자들의 수도 얼마 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볼 때, 지역 소식을 전한다는 것은 공동체 라디오의 정체성의 일부를 구성할 뿐이다. 실제로 방송제작에 참여하는 지역 구성원들과의 인터뷰에서도 지역 구성원들이 바라보고 있는 공동체 라디오의 위상은 다르게 나타난다. 다시 말해 청취율이라든가 수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게 되면 공동체 라디오의 일부분만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다. 청취율이라는 잣대에서 벗어나, 참여자의 문화적 실천이라든가, 지역 공동체 문화 활성화와 이와 관련된 공동체 라디오의 ‘실천적 개입’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해 보았을 때 비로소 공동체 미디어로서의 강점과 특성이 잘 드러난다. 마포 FM이라는 이름의 무게로 인해, 마포구 지역 전체를 담아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 예를 들어 〈송덕호의 마포 속으로〉와 같은 프로그램은 당연히 지역성의 반영 차원에서 지역의 주요 소식을 담아내야 하는 것은 맞지만, 동시에 공동체 라디오의 정체성을 지역소식의 전달로만 국한시켜서는 안 됨을 보여준다.

일본에서도 오셨고, 일본의 대안교육 이런 단체였는데, 일본도 수는 많은데 거기도 질적으로는 그 역할을 되게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일본도 한 200개 넘는데 공동체 라디오가 …(중략)… 그분들이 오셔서 한국의 공동체 라디오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보러 오셨어요. 저희는 저희도 너무 미흡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어디에서 보기에는 나름 여기는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인터뷰 대상자 B)

지역 공동체 구성원들의 삶과 유기적으로 엮여 상호작용하는 관계 속에서 바라보았

을 때, 공동체 라디오는 커뮤니티의 커뮤니케이션 활성화를 촉진시키는 매개체로서의 정체성이 잘 구현된다고 하겠다. 물론 이것이 공동체 라디오가 지녀야 하는 궁극의 미덕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콘텐츠 중심적인 시각으로 보았을 때는 정당하게 부각되지 않는 측면이기도 하다.

지금 다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때의 출발점과 지금의 마포 FM은, 이런 목적이 조금 더 어느 하나의 공동체에 기반한다기보다는 다양한 공동체 안에서 플랫폼 역할을 한다거나 연결 역할을 한다거나 그리고 중간자 역할, 정말 미디어로써 역할에 충실한 방향으로 조금 변해오는 과정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다시 마포 FM 관련해서는 이 역할에 대해서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지역 공동체 라디오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미디어가 갖는 미션들 있죠, 객관적인 전달을 하고 중간자 역할을 하고 매체 역할을 하고 정보를 계속 소통시키고 이런 역할들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맞느냐, 공동체 라디오가 그걸 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원래 시작처럼 어떤 색깔 있는 공동체, 만들고 싶은 공동체를 살찌우거나 전달하거나 지역사회에 소통시키는 그런 역할을 가지는 것이 맞느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혼재하는 것 같고... (인터뷰 대상자 C)

미디어의 콘텐츠가 갖고 있는 대안성 못지않게, 공동체적 삶을 엮어내는 매개체/매체로서 가교 역할에서도 공동체 라디오의 정체성이 묻어난다. 지역소식의 생산자로서만 공동체 미디어를 규정지었을 때에는, 지역 미디어가 지역의 삶에서 할 수 있는 다른 가능성들을 묻어버리게 된다. 일반 지상파 라디오와 같은 선상에서 접근하게 될 경우, 공동체 라디오만의 특성이 드러나지 않으며 실질적인 필요성 또한 약화되어버린다는 것이다.

다른 기관들이나 지역이나 단체에서 하는 활동들을 저희가 많이 소개하고 그러기는 하죠. 지역 축제가 열리면 축제가 열리는 동안 생중계, 생방송, 생방송 프로그램을 같이 기획해서 같이 한다든지, 흥대 앞에서 열리는 축제들하고 저희가 잘 결합해서, 그런 활동을 하고, 성미산 축제하고도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고, 마포구에서 하는 축제라든지 여기에도 저희가 나가서 방송을 하기도 하고, 이게 이 정도 하는 게 공동체 라디오가 하는 최선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늘 있는 거예요. 방송이 지역과 결합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은 그냥 방송으로 지역의 일들을 전해주면 되는 건가. 그러면 공동체 라디오가 자기 역할을 하는 건가 이런 고민이 되는 거고 ... (중략)... 최소한 마포에서 곳곳에서 일어나는 지역의 핵심적인 이슈

는 저희가 다 짚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렇게 하면 그게 공동체 라디오의 역할을 다 하는 거다 그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사실 공동체 라디오가 지역의 여러 단체들과 결합을 하면서, 뭔가 좀 다른 기획을 하는, 이런 것이 공동체 라디오의 어떤 핵심적인 역할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작년부터 좀 들었던 거예요. (인터뷰 대상자 A)

위의 진술은 공동체 라디오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고스란히 드러낸다. 하나는 지역 소식을 전달하는 데 방점을 두는 내용 중심적 접근이고, 다른 하나는 공동체적 삶 속에서 지역 공동체 라디오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 지에 대한 미디어 외적인 환경과의 상호작용적 측면에서 본 접근이다.

지역 공동체와 공동체 라디오의 관계에 대해 인터뷰 대상자들에게서 각각 상이한 의견들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이런 견해의 차이는 표면적으로는 방송국을 운영하는 상근활동가로서의 입장(인터뷰 대상자 A와 B)과 프로그램 제작을 통해 방송국과 관계를 맺게 된 지역 공동체 구성원들의 입장(인터뷰 대상자 C와 D)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런 상이한 인식의 차이 속에서도 교차점으로 언급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데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이런 인식은 공동체 라디오의 콘텐츠 생산 방식이라든가, 콘텐츠 구성 등과 같은 미디어 내적인 측면에 대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 라디오가 공동체적 삶을 매개로 지역 공동체와 어떻게 긴밀하게 유기적으로 엮여져야 하는가에 대한 성찰의 공유에 기반한다. 공동체 라디오를 지역 사회와의 관계 속에 사회문화적으로 위치 지음으로써 구현하게 되는 정체성이라고 하겠다. 다시 말해, 미디어 외적인 측면에서 미디어와 미디어 외적인 환경 요인과의 관계성 속에서, 즉 미디어를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 위치시키고 주변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통해서 접근했을 때 발견할 수 있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니까 그냥 관념적으로 보면 그냥 이웃집, 그냥 스치고 지나갈 잘 모르는, 평소 때는 그냥 스치고 지나갈 인연인데, 정말 이웃의 소소한 이야기, 살아가는 이야기 그게 재미있을 것 같은 거죠? 재미있을 것 같고, 그게 또 공동체 라디오의 콘텐츠에 경쟁력일 것 같은데... 근데 생각보다 재미없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들이 정말 재미없어요, 재미없습니다. 어떤 때 재밌느냐 하면, 그 사람이 저랑 관계가 있을 때, 아주 약한 관계 고리라도 있을 때 재미 있어요. (인터뷰 대상자 C)

조한혜정 박사가 이야기한 것도 바로 그거였어요. 지금 현대의 서울에서 산다고 하는 것은 개인이 혼자 알아서 잘 하는 삶이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개인에게 떨어져 있고...(중

략)… 어찌되었든 혼자서 그 문제를 해결해나가야 되는 것이고, 만약 그런 해결들을 해나가지 못할 때에는 이주민으로 전략을 시키는 이런 사회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 대표적으로 서울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공동체를 만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그리고 어쨌든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미디어가 마을 미디어인 것이고, 저는 마을 미디어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공동체 라디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중략)… 마포 지역에서 일어나는 소식을 듣고 싶으면 마포 FM만 다이얼을 딱 맞춰놓으면 마포의 소식들을 많이 들을 수 있고 한 거니까, 훨씬 더 공동체 미디어로써 공동체 라디오의 역할이 훨씬 더 큰 거죠. (인터뷰 대상자 A)

인터뷰 대상자 A의 후반부에 반영되어 있듯이, 생산해내는 콘텐츠의 차별성 측면에서 본다는 것은 내용 중심적인 접근으로 볼 수 있다. 문제는 이런 접근의 실효성에 관한 것이다.

전국을 아우르는 지상파 방송이 지역성을 잘 구현해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대안으로서 공동체 미디어의 강점에 주목하는 경향이 있음에 대해, 인터뷰 대상자 C의 언급은, 내용 중심적인 접근은 공동체 라디오가 가진 다른 가능성을 축소시킬 우려가 있음을 시사한다. ‘관계망’이 구체적으로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지역소식, 즉 내용만으로는 지역 청취자들에게 큰 매력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측면은 마포 FM이 약 39만에 가까운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마포구를 커버하려고 할 때 발생하는 문제점이기도 하다.²¹⁾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인허가를 받은 7개의 공동체 라디오 이외에 인문지리적으로 긴밀하게 엮인 몇몇 동 단위의 공동체 라디오가 공동체적 삶과 훨씬 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양태를 보인다고 하겠다.²²⁾ 공동체적 삶이 묻어나는 공동체 라디오의 정체성에 대한 요구가 좀 더 현실화된 형태로 재점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시각은 추후 마포구 내에 더 많은 공동체 라디오가 생길 가능성을 열어놓게 되며, 현재 마포구를 대상으로 한 공동체 라디오로서의 정체성의 재구성과 관련된 문제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마포 FM의 청취권역과 관련해서 행정구획 중심으로 마포구라는 공간에 국한해서 그렇지, 실제로는 가깝게 접한 서대문권역에 거주하고 있는 이들도 청취하는 경우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는 인문지리적 공간이 아니라, 행정구획으로 공동체 라디오의 활동 범위를 한정되었을 때 발생하게 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21) 2016년 6월 기준 서울특별시 마포구 인구는 384,990명.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22) 대표적인 사례로 창신동 라디오 <뎀>의 경우, 창신동 제1~3동 인구는 2016년 5월 기준으로 23,318명이다. 창신 제1동(5,925명), 제2동(9,741명), 제3동(7,652명).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이런 측면은 이후 한국사회에서 공동체 라디오가 스스로의 정체성 재구성과 관련하여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다른 차원의 문제의식을 이끌어낸다. 대도시 구 단위 또는 소도시의 공동체 라디오의 출범이 지닌 의의이자 한계점은 무엇인가.²³⁾ 이를 보완하는 실천으로서 몇 개의 동 단위 규모의 인문지리학적으로 인접한 지역 밀착형 공동체 라디오의 등장은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 그리고 이미 구 단위의 큰 규모로 시작한 공동체 라디오는 이런 소규모 동 단위의 공동체 라디오의 출현과 관련하여 어떻게 스스로의 정체성을 재구성할 것인가. 그런 변화와 맞물려 작은 규모의 공동체 라디오와의 관계성은 어떻게 설정할 것이며, 지역 공동체와의 관계성과 관련하여 공동체적 삶 속에 어떻게 묻어날 것인가 등은 본 연구에는 답아내지 못하지만 이와 관련해서는 후속 사례 연구들이 필요할 것이다²⁴⁾.

저하고 조금 다른 점은, (마당은) 이 마포 공동체 라디오는 무지개를 다 담아내는, A부터 Z까지를 다 담아내는 걸로 생각하세요. 근데 저는 그럴 수는 없다. 신문도 색깔이 있잖아요. ... (중략)... 아무리 객관·공정 보도 이런 거를 얘기해도, 자기의 정체성, 주관, 색깔, 향기가 있거든요. 근데 마포 FM의 향기는 뭘까, 그 부분이 저는 제기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인터뷰 대상자 D)

아무래도 어떤 자기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 내지는 자기가 만들고 싶은 공동체, 어떤 색깔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 이런 식의 출발점들이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그 공동체를 기반으로 해서 그 공동체를 살찌우거나 그 공동체를 확장하거나 지역 사회와 소통시키거나 이런 식의 목적을 갖는, 예를 들어서 마포 FM 같은 경우는 굳이 비유를 해보자면, 성미산 공동체가 있고, 성미산 공동체를 살찌우고, 성미산 공동체를 확장시키고, 성미산 공동체를 마포라는 큰 지역사회와 소통시키는 역할... (인터뷰 대상자 C)

23) 2016년 6월 기준으로, △관악 FM, 서울특별시 관악구(510,333명) △광주 FM, 광주광역시 북구(443,723명) △금강 FM, 충청남도 공주시(110,145명) △성남 FM,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503,629명) △성서 FM, 성서지역은 대구광역시 서쪽에 있는 달서구 서북권 지역 일대를 지칭하는 명칭(달서구 인구는 595,287명) △영주 FM, 경상북도 영주시(109,345명).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24) 최근에는, (공동체 라디오가 2009년 이후 출범한 7개의 인허가 받은) 소출력 지상파 송출형 라디오 형식 외에 팟캐스트라든가(예: 창신동 라디오 <뎀>) 인터넷에 기반한 형태로 확산되고 있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소규모 지역밀착형 공동체 라디오('마을 미디어'로도 표현되는)가 공동체적 삶이 묻어나는 문화적 실천을 어떻게 엮어내는가, 그 속에서 참여자들은 문화적 실천의 장을 어떻게 생산하고 구성해내며, 이 과정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재구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접근 등이 후속 연구가 감당해야 할 핵심적 이슈들이라 할 수 있다.

인터뷰 대상자 D가 성미산 마을 공동체 주민이자 활동가라는 입장에서, 그리고 지역 내 사회운동 활동가로서 인터뷰 대상자 C가 지역 공동체와 마포 FM의 긴밀한 관계망 형성에 주목하고 있다면, 마포 FM 상근활동가로서 활동했던 인터뷰 대상자 B는 이와는 다른 의견을 보이고 있기도 했다. 이런 문제의식은 지역마다 지역 공동체와의 관계성 속에서, 사회문화적인 맥락 속에서 지역 미디어의 정체성이 구성/재구성되고 있음을 시사한다.²⁵⁾

제가 볼 때는 그냥 성미산은 마을이고요, 마포 FM은 마을의 미디어이고. 근데 또 성미산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둘을 계속 묶으려는 어떤 시도가 제가 볼 때는 그것이 거기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중략)… 굳이 마포 FM을 이야기할 때 성미산을 언급할 필요가 전혀 없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교차점이라고 해봤자 청취권역 안에 있는 한 마을인데, 많이 주목받는. 그 안에 사시는 분들이 또 다채로운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하고 계신 정도이지. 그 다채로움이라고 하면 흥대에 음악하거나 몇십 년씩 장사하신 분들도 또 하나의 문화이고. …(중략)… 제가 볼 때는 마포 FM은 지역 미디어이지만 그 지역을 전체를 알려내거나 또 지역민들과 구석구석 소통을 하기에는 많이 단절된 미디어이고요. (인터뷰 대상자 B)

인터뷰 대상자 B의 의견은 두 가지 방향으로의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지역 내 특정 공동체와의 유기적인 엮임으로만 마포 FM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것은 제한된 시각이라는 비판적인 의견이 있지만(마포구의 다채로운 소식을 담아내겠다는 취지를 지니고 있지만), 공동체 라디오가 마포구 전역을 대상으로 지역 주민들과 소통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음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문제의식은 인터뷰 대상자 E가 전하는 방송참여자들 혹은 지역 공동체 구성원들의 목소리에도 간접적으로 담겨 있다. 이 부분은 한국사회에서 공동체 라디오의 포지션이 어디에 더 주안점을 두었을 때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이끌어내게 한다. 기존 미디어와의 차별성이라는 매체 중심적 시각에서

25) 인터뷰에서는 마포 FM이 정체성과 관련해서 운영위원진들과 상근활동가, 마포 FM 회원들, 그리고 성미산 마을공동체 구성원들, 특히 활동가들과 갈등관계를 형성하기도 한다는 언급이 있기도 했다. 주된 갈등은 마포 FM의 지속적 존재를 가능하게 할 재정 확보와 관련한 이사진 구성이라든가 이로 인해 마포 FM이 마을 미디어 본연의 정체성이 흔들리게 될 수도 있다는 우려 등으로 인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런 문제는 다른 공동체 라디오도 공히 겪고 있는 문제이고 관련하여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반영한 논문들이 있으므로 본 연구 논문에서는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이런 부분도 공동체 라디오가 정적으로 정체성이 구성되지 않고 동적으로 정체성이 구성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에 속한다고 논의를 전개할 수도는 있겠으나, 이는 별도의 연구가 필요한 사안으로 본다.

공동체 라디오를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지역 공동체와의 관계 맺음 또는 시민사회의 활성화 차원에서 공동체 라디오를 바라볼 것인가. 공동체 라디오의 포지셔닝과 관련한 현장에서의 이런 고민들은, 이론적 논의에서 로드리게스 등(2014)의 비판적 문제제기에서 볼 수 있듯이, 공동체 라디오와 지역 공동체와의 상호작용 차원에서 공동체 라디오를 재조명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마을 미디어가 어떻게 보면 저희 본부장님도 한번 말씀하셨는데 이장 방송 이걸 모델로 한다고. 그러니까 마을에 무슨 일 있으면 바로바로 알려내고 또 마을 사람들이 답답해하면 또 와서 이야기하고 아마 밖에서 보시는 분들도 그런 것을 그리실 거예요, 마을공동체 이려면. (인터뷰 대상자 B)

그게 마포 FM을 방송국으로 보는 사람들, 시민사회단체로 보는 사람들, 그렇게 입장이 있긴 하거든요. 둘 다일 수도 있고, 어느 하나도 아닐 수도 있긴 하지만. (인터뷰 대상자 E)

3) 동적인 공동체적 삶과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추동하는 플랫폼

지역 미디어에 대한 논의에서 작게는 지역 공동체 구성원 개개인의 적극적인 참여가 지역 미디어의 정체성 형성에 긴밀한 영향을 준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를 더 넓게 확장해서 본다면, 지역 공동체와의 긴밀한 상호작용이 있을 때 바로 그 속에서 지역 미디어로서 공동체 라디오의 정체성이 잘 묻어난다고 볼 수 있다.

연중 캠페인으로 '작은 도서관을 만듭시다'라는, 이런 어떤 캠페인을 했어요. 그래서 방송을 통해서 계속 '작은 도서관을 만듭시다'라는 그런 캠페인을 계속 방송을 통해서 내보냈고, 그리고 도서관 학교를 열어서 동네에서 작은 도서관을 만들어 보고 싶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작은 도서관은 어떻게 만드는지, 어떻게 운영하는지 이런 강좌도 열고, 방송 프로그램에 이제 꼭지를 하나 만들어서 ...(중략)... 이제 민간에 있는 작은 도서관들끼리 네트워크도 만들고, 그리고서 어쨌든 저희는 연중 캠페인을 했으니까, 그걸 그만뒀고, 최근에 보니까, 민간 도서관들 네트워크에서 "올해 동네 책 잔치는 어떻게 할까요? 휴가 끝나고 만나서 이야기 나눠봅시다." 이렇게 메일도 왔더라고요. (인터뷰 대상자 A)

그렇죠. 플랫폼. 플랫폼을, 이런 욕구를 가진 사람들에게 다른 네트워크로 가는 것도 있지만,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마련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와서 자기네들의

네트워크를 홍보를 해도 좋고. 허브로서, 소식이나 이런 것들이 돌아다녔으면 좋겠어요.
(인터뷰 대상자 F)

마포 FM의 작은 도서관 만들기 캠페인은 일종의 커뮤니티 미디어 프로젝트 형식²⁶⁾으로 공동체 라디오가 기획을 시도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인터뷰 대상자 A는 해당 기획 이후에 지역의 작은 도서관들의 수적 증가가 있었으며, 직/간접적으로 지역 공동체의 삶의 개선에 마포 FM이 한 축을 담당했다고 술회한다. 이는 지역 공동체와의 유기적 관계 속에서 지역 공동체 구성원들의 문화적 실천을 매개로 공동체 라디오가 지역 미디어로서 기능할 때, 공동체 라디오가 가진 가능성은 다양하게 꽃피울 수 있음을 시사해주는 진술들이다. 그러나 커뮤니티 미디어 프로젝트와 관련한 공동체 라디오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다. 해당 지역의 다양한 이슈와 문제들에 대한 대안 및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공동체 라디오가 한 축을 담당할 수는 있지만, 인터뷰 대상자 F의 의견처럼, 이는 어디까지나 지역 공동체와 지역 공동체 구성원들의 활발한 참여를 위한 플랫폼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사항이다. 커뮤니티 미디어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경험들에 천착해서, 공동체 라디오의 정체성을 지역 행사 기획으로만 한정 지어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다만, 이런 커뮤니티 프로젝트 형식의 문화적 실천의 공유가 지역 공동체와 지역 공동체 구성원들의 활발한 상호작용을 촉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볼 때, 해당 사례는 공동체 라디오의 정체성 및 가능성에 대한 다양한 스펙트럼을 열어준다고 하겠다.

올해는 저희가 마을 합창대회라는 것을 준비했거든요. 아무래도 지역의 공동체를 만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의 사람을 만나는 일이고, 그런 어떤 계기를 좀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고 해서...(중략)... 사실 뭐 지역에 합창단이 마을 합창단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중략)... 그렇게 되면 그 지역에서 그만큼 활동하는, 지역에 애착을 가지는, 이런 이들이 많이 늘어나고, 그러면서 그런 애착들이 지역에 대한 관심으로, 그런 관심들이 이제 참여로 이렇게 이어지지 않겠느냐는 조심스러운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런 형식으로

26) ‘커뮤니티 미디어 프로젝트’라는 형식으로, 커뮤니티 미디어는 서구 선진국의 도시 커뮤니티에서 남미 농촌 커뮤니티까지 전 지역에 걸쳐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커뮤니티 고유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조직되고 있으며, 그 형태는 커뮤니티의 역사와 전통 및 구성원 상상력의 고도화에 의존해 관계를 매개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매체로 활용된다(채영길, 2015). 채영길이 정리한 사례들(인도·영국·호주·필리핀·브라질·미국·아프리카·남미)에서 프로젝트에서 활용/전유되는 매체들 중 라디오의 활용 빈도가 높았다는 것은 공동체 라디오의 정체성의 재구성이라는 차원에서 주목할 만한 사항이다.

우리가 이제 지역에서 우리가 직접 변화를 좀 이끌어내는 이런 활동들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공동체 라디오에 더 적합한 정말 공동체 라디오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단지 방송만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지역의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직접 참여하는 그런 어떤 모델이 훨씬 더 공동체 라디오답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인터뷰 대상자 A)

우리가 최초로 같이 기획을 했던, 말씀드린, ‘책 축제’, 그리고 완전히 주최가 되어 기획했던 합창 축제, 그렇게 정말 우리가 주최가 되어서 하거나, 정말 우리 일이거나, 정말 다른 것 안 보고 움직이는 것들 외에는... 그렇게 우리가 개방적인 자세로 커뮤니티를 대하고 있는가 의심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인터뷰 대상자 E)

이러한 진술/증언에는, 공동체적 삶과 관련하여 지역 공동체와 공동체 라디오가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계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 대안성이 도출되는 구체적 지점은 어디인가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이 들어 있다. 또 지역성이 담긴 콘텐츠를 생산하고 전달하는 차원에서 공동체 라디오의 위상을 한정짓는 것은 공동체 라디오의 정체성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활동가 본인의 경험과 문제의식이 담겨 있다. 다시 말해 문화적 실천을 매개로 공동체적 삶과 유기적으로 연계 있을 때 공동체 라디오의 정체성이 제대로 드러나며, 주류 미디어와의 차별적인 정체성/대안성이 돋보이게 된다고 유추해볼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공동체 라디오의 정체성은 고정적이지 않으며, 참여자들(지역 공동체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인문지리학적 시간적/공간적 조건에 따라 동적으로 재구성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서 오히려 지역성을 더 풍요롭게 담아낼 수 있는 시너지 효과가 더불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인터뷰 대상자 A는 이런 유기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더 풍요로운 지역 소식을 전달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²⁷⁾

27) “마포 FM은 지역의 중요한 활동에 대부분 참여합니다. 마을공동체, 사회적 경제, 문화예술, 교육, 지역재생, 도서관, 연대활동 등 빠지는 분야가 거의 없을 정도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중요 정보를 찾아냅니다. 물론 지역시사프로그램이 아니더라도 마을미디어는 마을활동 속에서 그 존재 의의가 있기 때문에 지역의 다양한 활동들과 관계를 맺고 함께 활동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대부분의 지역 활동들이 눈에 들어옵니다.”(송덕호 (2016. 6. 23). 마을미디어 언론으로 거듭나기. <서울 마을미디어 뉴스레터 ‘마중’>, 21호. URL: <http://maeulmedia.tistory.com/347>)

그리고 이제 그런 것뿐만 아니라, 지역에 뭐 이렇게 축제를 하다보면, 지역의 행사를 하다 보면 관련된 단체를 많이 만나게 돼요. …(중략)… 지역에서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는 여러 가지 네트워크들의 그 중심에 있는 것과 비슷한 거죠. 모든 지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활동들이 마포 FM으로 들어오고, 마포 FM은 또 그걸 가지고 방송활동을 만들고, 뭐 이렇게 진행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이렇게 네트워크들과 연결을 갖고 있으면서, 우리가 필요할 때 아니면 저쪽에서 필요할 때, 그때 마포 FM을 활용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필요할 때 그런 네트워크를 이용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가능하고, …(중략)… 우리 공동체 라디오가 지역에 어떤 네트워크들을 만들고, 그런 네트워크들을 묶어내고, 그리고 또 자체적인 사업을 통해서 지역을 만들어 나가고, 그런 것이 공동체 라디오가 사실 방송이라는 좁은 영역보다는 그런 것에 좀 더 집중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요즘 더 많이 하고 있어요. (인터뷰 대상자 A)

저희는 좋은 게 아까처럼 네트워크가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 동네에 뭐가 있다는 것을 잘 아는 것이 그래서 그나마 섭외가 쉬운 것이요, 동네끼리 붙어 있으니까, 그러면서 또 친해지는 계기들이 있어서, 빨리 와서 지금 어떻게 좀 해 달라고, 펑크 났다고 이러면 시소와 그네 이런 영유아 통합 지원센터 이런 데서 와서 아기들 이야기 해주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품앗이가 그나마 좀 되는…. (인터뷰 대상자 B)

지역소식에 대한 전달이라든가, 소수자를 비롯한 지역 공동체 구성원들의 소리를 담는다는 차원을 넘어서, 위의 경험들은 공동체적 삶에 유기적으로 녹아들어간 형태로, 공동체 라디오가 사회적 연대의 활성화에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비추고 있다. 공동체 라디오가 지역 공동체의 여러 행사들과 유기적으로 엮이면서 지역 공동체 활성화의 중심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지역 공동체 구성원들의 문화적 실천을 위한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할 때, 단순히 지역소식을 전달하는 차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공동체 라디오가 가진 더 다양한 대안성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발견들은 한국사회 대도시 내에서 주거불안으로 인해 지역 공동체가 형성되기 힘들며, 지역 공동체 구성원들의 지역 공동체에 대한 관심의 부족으로 공동체 라디오가 활성화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사고가 제한적인 시각임을 의미한다. 선후관계로 지역 공동체가 활성화된 후에 공동체 미디어가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 문화의 활성화와 공동체 미디어는 상호 긴밀하게 엮여 상호작용하며 성장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예전에 연세대 조한혜정 박사가 ‘마을 공동체 사업의 이론적 배경’인가, 인문학적인 접근을 한 번 시도한 적이 있었어요. 세미나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어떤 지역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만들어져야 되고, 그런 공동체의 여러 가지 활동들이나 이런 것들이 주민에게 다가가는 게 굉장히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미디어가 있어야 된다. 미디어가 바로 그런 지역의 문제나 논의, 대화, 이런 것들을 계속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역할들을 미디어가 해야만 하고, 그런 식의 마을 미디어가 필요하다. 뭐 이렇게 접근을 하셨더라고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정확한 것 같다. 마을 미디어가 그래서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이런 공동체 라디오가 필요한데... (인터뷰 대상자 A)

이런 고민들은 실제로 개국 이후 2010년까지 어려운 시기를 보내다가, 2010년을 분기점으로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되었다는 인터뷰 대상자 A의 소회 속에서도 발견된다.²⁸⁾ 2010년부터 지역 공동체와 적극적인 교류를 진행하고 연계 활동을 강화한 결과, 지역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계기가 되었다는 증언은 공동체 라디오의 정체성이 참여형 제작 방식이라든가 지역성을 반영한 내용적 요소 측면에만 주안점을 두었을 때 부각되는 것이 아님을 시사해 준다. 공동체라는 맥락 속에서 공동체 라디오를 포지셔닝하고, 지역 공동체와 어떤 관계 맺기를 하고 있는가 하는 측면에서 접근했을 때, 비로소 공동체 라디오의 존재 의미가 더욱 도드라진다고 하겠다.

지역 주민의 삶에 녹아들어가 있는 매체로서, 공동체 라디오가 공동체적 삶을 매개로 지역 공동체와의 문화적 실천으로 엮여졌을 때, 또 다른 측면에서의 공동체 라디오의 정체성이 구현될 수 있다는 것을 본 연구결과는 보여주고 있다. 이런 측면은 공동체 라디오가 공동체의 참여와 연대를 통해 사회적 이득을 실현하기 위해 쓰이며, 나아가 사회 변화를 목표로 한다는 맥퀘일(Mcquail)이 언급한 ‘공동체주의’적인 관점도 일부 담아낸다고 하겠다(Mcquail, 2005; 최성은, 2014 재인용). 이런 접근이 공동체 문화의 복원과 활성화를 통한 사회적 연대의 강화라는 측면에서는 유의미한 접근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에 더해 실제로 참여자들의 공동체 라디오를 통한 문화적 실천이 가진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로드리게스가 언급한 시민 미디어로서의 공동체 라디오에 대한 접근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28) <개국 10주년 특집 마포 FM 10인 유감 3부. 다시 기대> 편. 해당 방송분은 개국 기념행사 방송용으로 야외에서 1회 송출/방송된 후, 정규편성으로 재방송된 바는 없다. 해당 자료는 당시 해당 프로그램 기획을 담당했던 활동가를 통해 구했음을 밝힌다.

5. 나가며

공동체 라디오의 사회적 가치에 주목해서, 2012년 8월 31일에 국회에서는 <공동체라디오 방송진흥법안>이 해당 상임위원회인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의안으로 상정된 바 있으나, 적극적으로 사회적 차원에서의 논의로 확대되지 못한 채 2016년 5월 29일 19대 국회 임기만으로 폐기되었다.²⁹⁾ 당시 소관 상임위는 기존의 <방송법>과 <방송통신발전기본법> 등에서 공동체 라디오 방송 관련 조항들을 두고 있다는 사유를 들어, 별도의 <공동체라디오방송진흥법안>의 제정을 유보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공동체라디오방송진흥법안 검토보고서, 2013. 6). 미국에서 기존의 방송 관련 법안과는 별도로 <지역공동체라디오법>을 입법하여 2011년에 대통령 서명까지 거친 것과 비교해 볼 때, 한국사회에서 관련 논의가 사회적 차원으로 확대되지 못한 채 종료된 것은 공동체 라디오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성급한 결론이었다고 생각한다.

규범적 차원에서 공동체 라디오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음에도, 외국의 사례처럼 한국사회에서 공동체 라디오가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음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는 시작되었다. 실제로 현장연구 과정에서 듣게 된 목소리는, 서울시 차원에서 마을미디어지원센터가 설립되어 공동체 라디오가 관심을 받고는 있지만, 사회적 차원의 논의로 확대되지 못한 채, 구체적인 제도적 지원 장치의 미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에 본 연구는 공동체 라디오에 대한 규범적 필요성의 제기에도 불구하고 학계의 지적 유행인 양 논의의 저편으로 사그라져가고 있다는 현장의 우려의 소리를 담아, 공동체 라디오에 대한 논의가 재활성화 되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마포 FM의 사례로 고찰을 시도해 보았다.

본 연구는 지역 구성원들의 제작 참여와 관련된 문화적 실천, 그리고 공동체적 삶을 매개로 지역 공동체와 공동체 라디오의 유기적인 상호작용에 주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분석결과 다음과 같은 점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주류 미디어와 달리 공동체 라디오가 갖는 차별성은 미디어 수용자들이 자신들이 직접 참여를 통한 미디어/문화적 실천을 통해 사회적 관계망을 구축하고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을 재구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공동체 라디오의) 미디어 콘텐츠가 갖고 있는 대안성 못지않게, 미디어와 미디어 외적인 환경 요인과의 관계성 속에서, 공동체 라디오는 해당 미디어가 위치한 사회문화적 맥락에

29) 해당 제정안은 <공동체라디오방송진흥법안>이라는 제명으로, 총 4장 및 26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법률제정에 따른 부칙은 1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자세한 사항은 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 참조.

따라 주변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공동체적 삶을 엮어내는 매개체로서 기능하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지역 공동체 구성원들의 문화적 실천을 위한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할 때, 단순한 지역소식을 전달하는 차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공동체 라디오가 가진 다양한 대안성들이 도출된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연구 대상인 마포FM의 경우, 공동체적 삶과 관련하여 지역 공동체 구성원들의 문화적 실천을 통해, 지역적 문제의 해결 그리고 지역 공동체 문화의 복원과 활성화를 위한 촉매체로서의 정체성 확립/재구성을 모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연구과정에서 인터뷰 대상자들의 의견에 간접적으로 반영되어 있듯이, 마포FM이라는 행정단위의 규모로 인해 연구결과에 좀 더 구체적으로 공동체적 삶이 어떻게 묻어나고 있는가에 대한 분석까지 진행하지 못했음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인터뷰 내용에 성미산 마을과의 관계성이라든가 흥대의 문화적 환경과의 관계성 등이 언급되어 있지만, 마포FM은 특수성이 담긴 공동체적 삶이 묻어난 공동체 라디오라는 접근으로까지는 이어지지 못했음을 고백한다.

물론 본 연구에서 시도한 접근 외에 콘텐츠 내의 지역성의 구현이라든가, 참여자/소수자의 자기 정체성의 재구성이라든가, 참여형 제작방식이라든가 공동체 라디오가 갖는 다른 특성들도 중요하다. 그러나 연구 결과에서처럼 지역 미디어라는 측면에서 지역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공동체적 삶이 묻어나는 매체로서의 정체성 구현 또한 공동체 라디오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다. 각 지역별/사회별로 다른 양상으로 공동체 라디오가 형성되었고, 정체성을 구성해내고 있다는 것은 그런 측면을 반영한다고 하겠다. 이런 방식은 사회문화적 실천이라는 차원에서 공동체 라디오의 정체성에 대한 접근들이 이어질 필요가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 이를 위해서 연구 결과에서도 잠깐 언급했듯이, 행정구획 중심이 아니라, 인문지리학적으로 유기적으로 긴밀한 소규모 지역밀착형 공동체 라디오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함을 제언으로 남긴다. 공동체 라디오가 지역 공동체 구성원들의 문화적 실천을 통해서 어떻게 공동체적 삶이 묻어난 미디어로서 정체성을 구축하고 있는가에 대한 후속 사례 연구들을 기대해본다.

참고 문헌

- 강수진 (2012). <오디션 리얼리티 쇼의 서사적 특성과 신자유주의 통치성: '더 엑스 팩터'와 '슈퍼스타 K2' 비교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강진숙이은비 (2013). 공동체라디오 DJ의 미메시스적 실천과 유희성 연구. <방송문화연구>, 25(2), 37-66.
-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SearchResult.do>
- 김경환 (2012). 공동체 라디오 방송의 프로그램 제작 참여 동기가 참여 만족도 및 참여 의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21권, 117-145.
- 김선희 (2009). <시민 미디어로서의 공동체 라디오: 금강 FM 자원 활동가의 방송 참여 경험을 중심으로>.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은규 (2005). 다윗과 골리앗을 넘어서: 대안 미디어 정체성에 대한 새로운 논의 통과 그 함의. <한국언론학보>, 49권 2호, 255-282.
- 김은규 최성은 (2013). 정규방송 도입 이후 공동체 라디오 운영구조 및 정책에 대한 평가적 고찰. <언론과학연구>, 13권 3호, 184-214.
- 김은주 (2006).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소출력 라디오방송 시스템 구현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 정보과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창주 (2007). 공동체의 재발견, 소출력 라디오. <말>, 통권 248호, 32-35.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2013). <공동체라디오방송진흥법안 검토보고서>.
- 박복선 (2010). 도시 안에도 '마을'이 있다: 성미산 공동체. <로컬리티 인문학>, 16, 2-3.
- 박창원 (2008). <소출력 '공동체 라디오 방송'의 활성화 방안 연구: 성서 공동체 FM을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정책정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성정애 (2006). <공동체 미디어로서 소출력 라디오의 이론적 유형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송덕호 (2006). 공동체라디오 개국 1년. <신문과 방송>, 431호, 130-133.
- 송덕호 (2016. 6. 23). 마을미디어 언론으로 거듭나기. <서울 마을미디어 뉴스레터 '마중'>, 21호. URL: <http://maulmedia.tistory.com/347>
- 안진-채영길 (2015). 공동체 미디어 실천과 다문화 정체성의 재구성. <한국방송학보>, 29권 6호, 94-136.
- 유선영 (2005). <한국의 대안미디어>. 서울: 한국언론재단.
- 이재열 (2006). 지역사회 공동체와 사회적 자본. <지역사회학>, 8권 1호, 33-67.
- 이지섭 (2007). 우리 동네 라디오, 내가 만드는 라디오 방송: 공동체 라디오 마포FM 탐방기. <노동사회>, 121호, 151-156.

- 전아름 (2009). 감동을 전하는 1w의 힘 '동네방송'에 담긴 우리들의 이야기. <민족21>, 통권 95호, 130-135.
- 정빛나 (2011). <소출력 공동체 라디오의 지역성 구현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차재영 (1999). 미국의 공동체 라디오(community radio) 연구. <북미주학연구>, 8권, 199-213.
- 차재영 (2007). 지역공동체 라디오와 지역대학의 역할. <사회과학연구>, 18권 여름호, 67-81.
- 채영길 (2015). <커뮤니티 미디어 이론과 실천>.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최성은 (2010). <국가 규제와 공공지원이 공동체 미디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최성은 (2011, 4월). 한국 공동체 라디오 정책에 대한 비판적 분석. <한국방송학회 2011 봄철 정기학술대회 자료집>, 82-83.
- 최성은 (2014). <공동체 라디오>.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하주영 (2005). <공동체 라디오의 특성과 제도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한산·이오현 (2008a). 공동체 라디오와 자기효능감: 미국 공동체 라디오 KOPN에 대한 민속지학적 연구. <한국언론학보>, 52권 5호, 79-114.
- 한산·이오현 (2008b). 한·미 공동체 라디오 비교연구: 하위 공론장 역할을 중심으로 한 질적 연구. <언론과 사회>, 16권 4호, 79-114.
- 한정미 (2006). <'소출력 공동체 라디오 방송' 마포 FM 평가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Atton, C., & J. F. Hamilton (2009). *Alternative Journalism*. London, UK: Sage. 이효성 역 (2011). <대안언론>.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Berrigan, F. (1979). *Community Communications: The Role of Community Media in Development*. Paris, FR: Unesco Press.
- Dowing, J. (2001). *Radical Media: Rebellious Communication and Social Movement*. Thousands Oaks, CA: Sage.
- Hall, S. (1996). Introduction: Who Needs 'Identity'. In S. Hall, & P. du Gay (eds), *Questions of Cultural Identity* (pp. 1-17). London, UK: Sage.
- Martin, B. J. (2006). A Latin American Perspective on Communication/Cultural Mediation. *Global Media and Communication*, 2(3), 279-297.
- McQuail, D. (2005). *Mass Communication Theory* (5th edition). London, UK: Sage.
- Qiu, J. L. (2009). *Working-class Network Society: Communication Technology and the Information Have-less in Urban China*. Cambridge, MA: MIT Press.
- Rodríguez, C. (2001). *Fissures in the Mediascape: An International Study of Citizens' Media*. Cresskill, NJ: Hampton Press.
- Rodríguez, C. (2011). *Citizens Media Against Armed Conflict: Disrupting Violence in Colombia*.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Rodríguez, C., Ferron, B., & Shamas K. (2014). Four Challenges in the Field of Alternative, Radical and Citizens' Media Research, *Media, Culture & Society*, 36(2), 150-166.

Wang, C. (1999). Photovoice: a Participatory Action and Research Strategy Applied to Women's Health. *Journal of Women's Health*, 8(2), 185-192.

투고일자: 2016. 3. 31. 게재확정일자: 2016. 7. 18. 최종수정일자: 2016. 7. 23.

Community Radio's Interaction with Local Community Residents

A Field Report on Mapo FM's Case

Myeong Jin Ban

Doctoral Student, Department of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Young Chan Kim

Professor, Media and Communication Division,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his study, by proposing a case study of community radio, attempts to expand the horizon of academic and social discussion on the medium that has been disproportionately skewed towards discourses on alternative media, technology, and programming content. As residents of local community actively participate in the production process, they reconstruct their cultural identities. In that sense, community radio is a medium that makes it possible the re-negotiation and reconfiguration of cultural identities of local residents. That is to say, a case study on the specific ways in which community residents appropriate community radio in reconstructing their identities offers us some entry points where we may come up with a new perspective on the identity of community radio. The results of fieldwork show that community radio, as it is closely intertwined with the residents' participatory cultural practices, is a medium of 'lived culture' -i.e., a medium that contributes to the making of civility, communitarianism, and social network. Community radio, then, may be redefined as an interactive medium that contributes to the formation of social rapport and solidarity.

KEYWORDS Community Radio, Cultural Practices, Interaction, Cultural Identities, Social Network